


“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”



경제의 틀을 바꾸면
미래가 달라집니다.



돈이 도는 활기찬 경제

	보도자료			
	보도	2016. 5. 12.(목) 조간	배포	2016. 5. 11.(수)
담당부서	금융혁신국 은행감독국 연금금융실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	이준호 선임국장(3145-8200), 이근우 부국장(3145-8202) 서정보 팀 장(3145-8210) 구경모 국 장(3145-8020), 김용태 팀 장(3145-8030) 권오상 실 장(3145-5180), 김금태 팀 장(3145-5199) 설인배 국 장(3145-5700), 이무열 팀 장(3145-5702)		

제 목 :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서비스 - 제1편 “원스톱 금융서비스” 〔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〕 등의 추진성과

- ◆ 금융감독원은 “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” 등을 통해 개선된 사항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가 잘 알고 활용하면 유익한 25가지 금융서비스를 5차례에 걸쳐 안내할 방침
- ◆ 그 일환으로 제1편에서는 ① 「휴면 금융재산 통합조회」 서비스, ② 「금융상품 한눈에」 서비스, ③ 자동이체 「계좌이동서비스」, ④ 「금융주소 한번에」 서비스, ⑤ 「통합연금포털」 서비스 등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소개

구분	서비스 내용	이용 방법
① 「휴면 금융재산 통합조회」	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현황을 원스톱으로 조회	은행연합회, 생보협회, 손보협회 홈페이지 접속후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
② 「금융상품 한눈에」	예금, 대출, 보험 등 금융 상품을 한눈에 비교	‘금융상품 한눈에’ 홈페이지(http://finlife.fss.or.kr) 접속후 상품 선택 등 희망 조건을 입력하여 검색
③ 「계좌이동 서비스」	자동이체(보험료, 통신료 등)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변경	이동할 은행의 영업점 및 인터넷 뱅킹, Payinfo 홈페이지(www.payinfo.or.kr)에서 자동이체 출금계좌 변경
④ 「금융주소 한번에」	주소(잡회사) 변경을 신청 하면 다른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도 한번에 변경	은행 등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
⑤ 「통합연금포털」	연금 수령시점 연령별 예상 연금액 등을 한번에 조회	‘통합연금포털’(http://100lifeplan.fss.or.kr) 접속후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

1

「휴면 금융재산 통합조회」 서비스

- (서비스 내용) 금융이용자가 은행, 보험사, 우체국,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있는 본인 명의의 모든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현황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
- (이용 방법) 은행연합회(www.sleepmoney.or.kr), 생보협회(www.klia.or.kr), 손보협회(www.knia.or.kr)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후 한번에 조회 가능
 - * 각 금융회사 보유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은 금융회사 창구에서도 조회 가능
- 휴면성 신탁 및 증권계좌* 현황은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 - *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(www.kofia.or.kr)에서 증권사별 휴면성 증권계좌 조회 사이트 링크를 통해 각 증권사의 조회화면으로 접속 가능
- 미수령 주식 현황은 유가증권 관리업무 대행기관* 홈페이지에서 해당 기관의 보유내역을 확인 가능
 - * 한국예탁결제원, KB국민은행 및 KEB하나은행 3개 기관은 주식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무상증자, 배당 및 상속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주식·배당금을 보관중
- (유익한 점) 개별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고객이 잊어버리고 있는 휴면 금융재산 현황을 쉽게 조회 가능
- (이용 현황) '15년중 은행연합회, 생·손보협회 홈페이지에서 일평균 7천건('15년중 누적 조회건수 256만 1천건)의 휴면 금융재산 현황을 조회
 - 특히, 휴면 금융재산 찾아주기 노력에 힘입어 '15년중 총 5,647억원의 휴면 금융재산 환급*

* '16.2월말 기준 약 1.4조원 이상의 휴면재산이 잔존

2

「금융상품 한눈에」 서비스

- (서비스 내용) 여러 금융회사에서 공통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금융 상품을 쉽고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
 - 은행, 저축은행, 보험사 등 163개 금융회사에서 판매중인 예·적금, 대출, 연금저축, 보험, 펀드 등의 금리, 수익률, 보험료 등을 비교 가능
- (이용 방법) '금융상품 한눈에' 홈페이지(<http://finlife.fss.or.kr>)에 접속하여 조회하고자 하는 상품을 선택한 후, 희망하는 조건을 입력하여 검색
 -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, 주택가격, 주택종류, 금리방식, 상환방식 등을 입력하면 이용할 수 있는 대출들의 최고·최저금리, 월평균 상환액 등의 정보를 확인 가능
- (유익한 점) 각 금융협회나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여러 금융권역의 유사상품을 원스톱으로 비교 가능
- (이용 현황) 서비스 개시('16.1월) 이후 약 4개월간 일평균 7천명이 방문하여 3만 1천건을 조회*

* '16.1.14~5.3. 기간중 누적 방문자수 75만명, 누적 검색조회수 343만건

3

자동이체 「계좌이동서비스」

- **(서비스 내용)** 각종 보험료, 카드대금, 통신료 등의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*

* 금융위·금감원·금융결제원·은행연합회가 「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」의 일환으로 공동 추진
(‘15.10.29. 보도자료 발표 : Payinfo에서 「은행권 계좌이동서비스」가 시작됩니다)

- **(이용 방법)** 이동할 은행의 영업점 창구 및 인터넷 뱅킹, Payinfo 홈페이지(www.payinfo.or.kr)에서 자동이체 출금계좌* 변경 가능

* 현재 카드, 보험, 통신사, 지자체, 공기업(지방세, 전가·가스·수도요금 등), 리스·렌탈 업체까지 연계 완료(전체 자동납부 건수의 95%)

다만 요금청구기관이 특정 은행으로 출금계좌를 제한한 경우(아파트 관리비, 학교 운영비 등)에는 서비스가 제한됨

- 예를 들어 A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되는 카드대금을 B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하고 싶다면 B은행에서 신청하면 변경됨

- **(유익한 점)** 금리우대, 수수료 면제 등 고객에게 유리한 거래조건*을 제시하거나 서비스가 우수한 은행으로 출금계좌를 한번에 쉽게 변경 가능

* (예) 자동이체를 일정 건수 이상 등록하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이 있어 해당은행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이 이루어지도록 변경한 후 신규 대출계약시 우대금리를 적용 받음

- **(이용 현황)** 서비스 개시(‘15.10월) 이후 약 6개월간 일평균 3만 5천명이 본인의 자동이체내역을 조회하였고, 3만 1천건의 계좌변경을 신청*

* ‘15.10.30.~’16.4.15. 기간중 누적 조회고객 409만 1천명, 누적 계좌변경 신청 355만 6천건

4

「금융주소 한번에」 서비스

□ (서비스 내용) 거래 금융회사 한 곳에서 주소(집·회사) 변경을 신청하면 다른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도 한번에 변경해주는 서비스

□ (이용 방법) 은행 등 거래중인 금융회사*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서에 변경대상 금융회사를 기재하거나 홈페이지**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

* 은행, 증권사, 보험사, 카드사, 저축은행, 종합금융사, 우체국, 주택금융공사 등 (할부금융·리스사, 농협, 수협, 산림조합, 신용협동조합, 새마을금고의 경우 신청접수는 하지 않으며, 타사 접수건에 대한 변경처리만 가능)

** 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이용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, 홈페이지 내 '인터넷뱅킹-개인정보관리(예)' 항목에 주로 위치

□ (유익한 점) 거래 금융회사 한곳에서 다른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까지 한번에 쉽게 변경 가능

○ 대출금 연체, 보험계약 실효, 보험 만기 등 중요 정보를 통보받지 못해 받을 수 있는 손실, 우편물 오배송에 따른 정보 유출 피해 등 예방 가능

□ (이용 현황) 서비스 개시('16.1월) 이후 약 3개월간 일평균 651명이 1인당 평균 18.5개* 금융회사의 주소변경을 신청**

* 은행 4.1개, 보험 5.4개, 금투 2.5개 등

** '16.1.18.~4.30. 기간중 누적 이용자수 4만 6천명, 누적 주소변경 신청건수 84만 1천건

5

「통합연금포털」 서비스

- (서비스 내용) 본인이 가입한 국민연금, 사학연금*, 퇴직연금, 개인연금**의 연금 수령시점, 연령별 예상 연금액 등 연금계약정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

* '16.5.13.부터 정보제공 예정

** 은행, 증권사, 보험사뿐만 아니라 수협중앙회, 신한중앙회, 새마을금고중앙회, 우체국 등이 판매하는 상품 포함

- 내 연금자산 수준에서 추가로 필요한 노후생활비를 산정해주는 '노후 재무설계' 서비스, 개인연금·퇴직연금 판매회사 및 상품 현황 조회 등도 이용 가능
- (이용 방법) '통합연금포털' 사이트(<http://100lifeplan.fss.or.kr>)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확인절차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3영업일 후 연금정보 확인 가능
 - * 연금정보 확인이 가능하게 되면 회원가입시 기재한 이메일주소로 안내메일 발송
- (유익한 점) 다수의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모든 연금의 납입액, 연금 수령시점, 연령별 예상 연금액 등을 빠짐없이 조회 가능
 - 조회시점의 은퇴재무상태를 기초로 본인이 기대하는 은퇴생활수준에 맞는 여유자금 마련 또는 연금가입을 통해 체계적인 노후준비 가능
- (이용 현황) 서비스 개시('15.6월) 이후 약 11개월간 일평균 2,055명이 방문하였으며, 310명이 회원가입*하여 연금정보조회 서비스 등을 이용
 - * '15.6.12.~'16.4.30. 기간중 누적 방문자수 66만 6천명, 누적 가입자수는 10만명
 - ※ 금년중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,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정보제공 예정

금융감독원은 작년에 이어 「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금융거래 과정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은 '금융관행 개혁 포털' (<http://better-change.fss.or.kr>) 내 '국민 참여방'으로 제보 바랍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